

[2015.11.30. 제23회 불교언론문화상]

치 사

한 해 동안 노력해온 모두의 공덕으로 ‘제23회 불교언론문화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교언론문화상은 1993년 제정된 이래 20여년 동안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리고 건강한 사회발전에 기여한 작품을 격려하고 사회 저변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현대사회의 환경에 맞도록 시장내역을 재편하고 뉴미디어 분야를 신설하는 등, 불교언론문화상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삶과 자비실천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가는 것은 불교 언론문화의 소중한 일이자 자산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사회는 자본과 물질이 앞서게 되어, 공동체 정신이 약화되고 생명이 경시되어가는 부조리가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언론매체 또한 스스로의 역할을 진중하게 요구받고 있기도 합니다.

현시대는 통신과 인터넷 공간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요소가 혼재하면서 그 폐해가 사회 저변에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를 넘어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러, 본연의 역할과 달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사회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함을 주는 소식일 것입니다. 신속함보다는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제공, 그리고 올바른 관점과 시각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불교언론의 올바른 모습을 상호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수상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불교언론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성찰과 헌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불자들과 국민들을 바른 마음 바른 실천으로 이끌어 미래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불교언론문화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수불스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리해 주신 여러 언론인들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2015)년 11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